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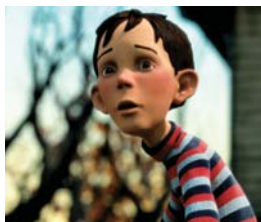
코미디와 호러의 흥미로운 만남

몬스터 하우스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피얼버그가 오랜 동료 로버트 저메키스와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몬스터 하우스>는 제목 그대로 집 자체가 괴물인 영화다. 집 창문이 야수의 눈처럼 이글거리고, 양탄자가 헛바닥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몬스터 하우스>는 그렇게 낯선 폐가가 주는 공포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완성해낸다. 특히 배우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세밀하게 포착한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사용해 마치 실사와 같은 테크닉을 발휘하며 작품 속에 몰입하게 만든다. 메가폰은 스피얼버그가 발탁했다는 신인 감독 길 캐넌이 잡았고, 각본은 <유령신부>의 파멜라 페틀러가 썼다. 다양한 표정연기를 선보이는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유머와 공포를 담은 <몬스터 하우스>의 매력을 되짚어본다.

글 신선자 자유기고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마을. 한 소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집 앞 잔디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자 겁에 질려 어찌할 줄 모른다. 그곳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 괴짜 노인 네버크래커의 집이어서다. 그렇게 시작되는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괴물의 집'이다. 기존 할리우드식 영화에서는 집이 공포의 대상으로 많이 등장하긴 했으나 <몬스터 하우스>의 공포 대상이 되는 집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괴물이 나오는 집이 아니라 집 자체가 거대한 괴물이다. 평소에는 평범한 집처럼 그 실체를 감추고 있지만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실체가 언제나 감춰질 수는 없을 터. 앞집에 사는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디제이는 괴짜 노인 네버크래커의 집이 어린 꼬마 여자아이의 세발자전거를 먹어 치우는 것을 목격하고, 네버크래커 할아버지의 집 자체가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왕성한 식욕의 몬스터임을 눈치 채게 된다. 그 이후 디제이는 그 집의 실체를 알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쓸데없이 말다툼만 하느라 바쁜 부모도, 극악무도한 베이비시터도 무관심할 뿐이다.

때는 마침 동네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과자를 얻어가는 할로윈데이. 애지중지하는 농구공을 괴물에게 빼앗긴 디제이의 친구 차우더, 과자를 팔려다 몬스터 하우스에 잡아먹힐 뻔한 또 다른 여자아이 제인. 그렇게 몬스터 하우스의 실체를 안 아이들은 디제이와 함께 괴물의 검은 입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찾고자 전략을 세운다. 그렇게 사춘기에 접어들어 호기심은 많으나 여전히 할로윈데이에 사망을 팔러 나가고 싶은 어린 아이들과 괴물의 집과의 한판 대결이 그려진다.

코미디와 호러의 독특한 만남

스피얼버그의 첫 애니메이션으로도 눈길을 모은 <몬스터 하우스>는 전개, 인물묘사, 캐릭터들의 세밀한 표정 연기까지 영화적 문법에 충실한 3D 애니메이션이다. 스토리는 매우 뻔한 어린이 모험 영



화를 떠올리게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집을 형상화한 첨단 테크놀로지만큼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낮이지만 여기에 덧붙여진 새로운 테크닉과 이야기들이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공포와 스릴러에 어드벤처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만들어내는 오묘조밀한 이야기 구성도 상업영화로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때론 으스스한 장면으로 관객들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서스펜스까지 자아낸다. 빼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던져주는 대사처리에서도 유머를 동반한 재치가 돋보인다.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솔직하다. 사탕만 찾던 겁 많은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용감한 소년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새침테기 여자 아이 역시 모험에 동참하며 동네 주민들의 영웅이 되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의 스토리 라인이다. 이들이 펼치는 모험 또한 색다른 게 아니다. 코미디와 호러를 뒤섞은 상상력의 풍부함이 미지의 세계, 재미의 나라로 안내할 뿐이다.

색다를 게 전혀 없어 보이는 단순구조의 스토리에 코미디와 호러를 뒤섞은 일반 장르적 문법을 따르는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괴물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집 자체가 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기발한 상상력이 한 몫을 하지만 그것만이 이 영화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할리우드는 히치콕의 <싸이코>에서도 보여지듯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거나 귀신들린 집을 사랑해왔고 <몬스터 하우스> 역시 그러한 할리우드 공식을 답습하고 있다. 다만 그 집이 보기에 소름이 끼치는 으스스한 교외가 아닌 평범하고 평화로운 동네로 이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영화의 독특한 색채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작진의 노고다. 이 영화는 애초에 <몬스터 하우스>를 실사영화로 만들 생각이었던 스티븐 스피버그와 그의 절친한 동료 로버트 저메키스가 제작 총지휘를 맡았고, <유령신부>의 능력 있는 각본가 파멜라 페틀러가 각본





을 썼으며, 한술더 떠 할리우드에선 단편 하나 만든 게 전부였던 젊은 감독 길 캐넌이 연출을 맡았다. 더욱이 스피버그가 발탁했다는 신참 감독 길 캐넌은 저메키스가 애니메이션 <플라 익스프레스>에 사용한 '퍼포먼스 캡처' 기법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켜 스피버그 특유의 <환상특급> 같은 분위기를 작품 전반에 입혀냈다.

첨단 테크닉이 제대로 된 제작진을 만나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사 같고, 단순한 듯 하면서 복잡 다양한 이야기 구성에 감칠맛 나는 대사로 잘 버무린 코미디와 호러를 양산해냈다. 기발한 상상력에 스피버그 특유의 인간미, 거기에 유머와 재치 넘치는 각본까지 삼박자가 모두 절묘한 조합을 이뤄 특별함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삶의 고독 담은 성인을 위한 동화(?)

한편 애니메이션 <몬스터 하우스>는 영화적 문법에 충실한 일반 아동용 가족 애니메이션으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는 요소도 많다. 전체 관람가지만 이 영화를 내 아이에게 즐겁게 보여주기는 어딘가 궤도를 이탈한 듯한 느낌이 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모험영화 코드를 따르며 호러 장르에 도전하고 있지만 영화는 일반 가족용 애니메이션이 공식처럼 따르고 있는 교훈성을 포기했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하지만 겁도 많은 주인공들에게는 어른 뺨치는 조숙함을 뒤집어 써어 놓았다.

영화는 음산한 놀이동산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마냥 질주해 나가지만 마냥 밝고 즐거울 것 같은 가족용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벗어나 있다. 시간 설정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찾아온다는 할로윈데이 무렵이고, 화면의 톤 자체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렇게 영화는 가장 안전하다는 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동심을 공포의 원형질로 몰아세운다.

음산한 어둠에 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보이는 주인공들에게는 어딘지 모를 결핍이 보인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감정을 드러냈다면 너무 인위적인 삶의 고독이 영화 곳곳에 묻어난다. 괴물이 된 집을 모티브로 삶의 고독과 그로 인한 극단적인 공포를 주된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선 오히려 아동용, 혹은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성인을 위한 동화에 가깝다.

또한 <몬스터 하우스>는 애니메이션이 반드시 아이들을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벗어던졌다. 영화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본보기가 될만한 행동도 보여주지 못한다. 디제의 부모는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긴 채 할로윈데이 전날 여행을 떠나고, 디제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는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기보다는 욕박지르기 일쑤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놀 궁리에만 바쁘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집이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고, 정원의 나무가 쿵쾅거린다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한다. 어른들의 행동은 관객의 선입견을 여지없이 뒤집으며 교훈성을 전면에서 내세운 애니메이션의 일반성을 거스르고 있다.

생생한 첨단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향연

어른들에게 외면당한 아이들은 스스로 호기심을 풀기 위해 수상한 집에 접근하고, 어른들의 보호 없이 맹활약하며 작은 영웅으로 거듭난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어드벤처가 시작된다. 집안 내부는 거대한 인간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빨간 양탄자는 인간의 혀로 변해 사물을 여지없이 빨아들이고 계단 옆에 드리워진 샹들리에는 사람의 목젖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몬스터가 된 집은 살아 움직인다. 더욱이 실사와 같은 생생한 느낌에 캐릭터의 묘미를 살려주면서 말이다. 이는 제작진이 이미 <플라 익스프레스>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캡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 캡처는 배우의 얼굴과 몸에 수백개의 조그만 센서를 달아 동작과 표정을 그대로 화면으로 옮기는 기법으로 배우들의 모든 미묘한 표정과 눈꺼풀의 떨림, 동작 하나하나까지 섬세히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고안된 시스템으로 이 영화에서 집체의 움직임과 캐릭터들의 표정연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자연스러운 것은 실사에 가까운 이 새로운 첨단 기술력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 3D 애니메이션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해가며 완성한 영화이기에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동작도 한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스크린 가득히 네버크래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 눈 밑 주름과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생생하게 전달된다. 영화에서 정확한 입 모양과 보다 세밀한 감정표현이 주는 압박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성격이 분명한 목소리 연기도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특히 캐서린 터너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미스터리한 여인 콘스탄스와 공포스러운 집의 목소리를 표현해 내 호러 영화로서의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어준다.

곳곳에 패러디 장면 눈길 끌어

아울러 <몬스터 하우스>는 곳곳에 <사이코>, <이창>, <캐스트 어웨이> 등 다양한 영화를 패러디한 장면들을 삽입해 영화적 재미를 더한다. 음침하고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괴물 집의 전경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연상시키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뒤에서 낮게 쫓아가는 카메라 장면은 스테니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을 변주한 듯 하다. 디제이가 망원경으로 괴물 집을 훑쳐보는 설정은 히치콕의 <이창>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변주된 장면을 굳이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영화적 재미는 충분히 있다.

특히 아이들을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몬스터 하우스의 질주장면은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쾌감을 전하며 영화에 힘을 더해 준다. 낡은 집이 팔다리가 달린 본격적인 괴물로 변신해 아이들과 한판 추격전을 벌이는 험란한 액션은 <몬스터 하우스>가 애니메이션으로서의 효용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더욱이 숨 가쁜 대결이 끝날 무렵 영화는 뜻밖의 러브 스토리를 꺼내 관객의 마음을 적신다. 이 집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연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45년 사랑의 비밀이 감춰진 <몬스터 하우스>의 숨겨진 비극이나 서정적인 결말은 팀 버튼의 <유령신부>에서 감각을 인정받은 패밀라 페틀러의 시나리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예상 가능한 단순 구성의 스토리지만 감칠맛 나는 대사과 캐릭터들의 생생한 연기가 움직이는 집이 주는 흥미로움을 끝까지 움켜쥐게 만든다.

일반 할리우드식 영화적 문법을 고수하지만 제작진의 독특한 시선을 배치시킨 <몬스터 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테크닉을 결정하고, 그 테크닉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일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아이들답지 않게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파멜라 페틀러의 대사 역시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청소년층은 왜야 영화를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애니메이션이 주는 교훈성을 저버리고, 슬픈 사연의 주인공인 몬스터 하우스를 무찌르면서 해방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걸맞는 내용이라기엔 무게감이 크다. 하지만 스틸·액션·유머를 잘 배합한 오락물로 두 제작자의 이름값은 충분히 한 듯 하다. 🍿

작품개요

장르 : 애니메이션 · 코미디 · 공포 · 어드벤처 | **감독** : 필 캐넌 | **주연** : 미첼 무소 · 샘 러너 · 스펜서 로크 · 스티브 부세미 · 매기 질렌홀 · 캐서린 터너 | **각본** : 파멜라 페틀러 | **제작** : 스티븐 스피버그 · 로버트 저메키스 | **음악** : 더글라스 파이프스 | **촬영** : 폴 바빈 외 | **관람등급** : 전체 관람가 | **러닝타임** : 92분 | **제작국가** : 미국 | **제작년도** : 2006년 | **개봉일** : 2006.08.10(국내), 2006.07.21(미국) | **수입 및 배급사** : 소니 픽처스 릴리징 코리아

